

2023-2 csee 특강 (2023.11.22 수)

22100579 이진주

SW전공자를 위한 취업 트렌드 및 이력서 작성법

강대명 강사님

이번 강의는 마침 고민이 깊었던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다. 강사님께서 위버스, 유데미,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시고 다양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개발자 사회와 취업 환경에 대해 여러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강연의 시작으로 꺼내신 말씀이 바로 취업시장의 얼어붙음이라는 점은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노력해야 할 지점 등을 잘 짚어주셔서 위안과 용기를 얻은 것 같다.

현재 채용 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바가 있었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히 안 뽑는 것이 아닌 전문성과 차별성 있는 인재를 원하는 흐름이 된 것이었고 이러한 인재들은 신입보다 경력에 몰려있기에 신입의 입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경직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그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솔루션은 어디든지 일단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컴퓨터 공학과의 특성상 수요가 모자란 적은 없었기에, 눈만 조금 낮춘다면 취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보통의 학생들은 첫 직장부터 소위 말하는 '네카라쿠배' 등 대규모의 IT 회사를 원하지만, 지금 사회의 특이성과 신입보다 경력이 훨씬 들어가기 쉽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첫 직장에 대한 환상을 조금 버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신입과 경력은 코딩테스트 컷부터 다를 정도로 경직도가 차이이며, 경직된 채용 시장에서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려면 기회 자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 치명적인 까닭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이 나쁘면 어떤 홍보도 의미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력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업에 '팔아야'하는 제품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둘 것을 강조하셨다. 즉,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어필을 할 수 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스킬을 쓰더라도 실력이 없는 것을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부 수업, 전공 지식들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성장을 경험해 일단 실속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기업이 지원자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크게 기술적 부분과 인성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이력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력서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JD, 채용공고이다.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이런분을 찾고있다는 명시적인 요구사항의 나열이 여기에 위치해있다. 지원자가 가진 기술 스택이 JD와 어긋나면 뽑히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목표하는 기업과 분야가 있다면 미리 JD를 찾아보고 명시된 기술셋을 미리 준비하는, 맞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공부하는 등의 노력이 유의미할 것이다.

더하여,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제일 신경쓰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위쪽에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 면접관이 검토하는 서류는 많고도 많아서, 앞쪽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뒤에까지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능을 만들었는지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지, 인프라는 뭐를 썼고 왜 썼는지 ...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스토리가 유추되게끔 하는 것이다. 면접관은 이력서를 통해 면접을 볼지 판단하므로 잘한 건 자세하게 잘 적어주자. 경력직의 이력서는 간단하게 쓰기도 한다 하지만, 신입과 경력은 완전히 다르다. 이력서에는 한개라도 허투루 적어서는 안 되며 면접에서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시 더 큰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어둔 모든 것을 최대한 깊게 복기하고 대비해야 한다.

결국 이력서를 잘 쓰려면 실력이 필요하다. 자료구조, DB, OS, 컴파일러 등 핵심이 되는 전공 과목들을 제대로 학습하고 체화해야 한다. 학부생 시절에 처음 배울 때 열심히 공부해 습득해둔다면 취업을 준비하며 매핑만 하면 되는데, 이 때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학습부터 다시 해야 하기에 힘들어진다. 탄탄하고 잘 갖추어진 전공 지식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이, edge point를 만든다. 더하여 실용적인 목적에서의 프로젝트 경험, 깃허브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짜는 방식, 생각을 풀어내는 방식도 큰 점수가 된다. 때로는 성공담보다 실수담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잘 쓴 이력서는 정답이 없지만 잘못 쓴 이력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라는 점도 덧붙여 알려주셨다.